

# 다미아니의 교회관과 종교개혁 이전 교회개혁운동

김 봉 수

충신대학교, 역사신학

## 1 서론

근대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중세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개혁운동들 심지어 중세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들에 대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얼마든지 진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sup>1</sup> 사실 교회사를 통해 이단으로 정

\* 논문접수일: 2011. 7. 25

논문수정일: 2011. 9. 10

게재확정일: 2011. 9. 19

1 “가톨릭에 의해 한때 이단으로 지목받았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자기들보다 앞서 이단으로 지목되었던 선배들을 그대로 이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라는 말로 중세의 개혁운동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두식은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중세 가톨릭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맹아였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실험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선구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손으로 쓰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종교 재판관들이 작성한 재판 기록이 고작입니다. 그런 기록들은 모두 똑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

죄될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추구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 이후에 정리된 교회개혁사상의 일부분이라도 중세의 개혁가들이 깨달아 현실에 적용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긍정적인 필요가 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보여준 개혁이념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정신에 근거한 ‘오직 믿음(*sola fide*)’과 ‘오직 은혜(*sola gratia*)’, 그리고 ‘만인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으로 정리가 된다.<sup>2</sup> 그렇다면 이 구호들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된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 말들이 성경적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sup>3</sup> 그리고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회관의 정립 차원에서 ‘만인제사장’을 강조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sup>4</sup>

다. 하나같이 이단자들의 사탄 숭배, 성적 일탈과 방탕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중세의 이단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말한다.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서울: 홍성사, 2010), 224-226.

2 ‘만인 제사장’,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세 가지는 흔히 루터의 개혁운동에 있어 3대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의 논리적 순서를 나머지 세 개가 ‘오직 성경’을 토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그리고 ‘만인제사장’의 사상적 근거가 ‘오직 성경’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오직 믿음’이나 ‘오직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만인제사장’은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이광호, “만인 제사장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고찰,” 『한국개혁신학 논문집』통권14호(2003): 364.

3 이런 말들, 특히 ‘만인제사장’의 성경적 기원이나 근거 성구들과 관련해서는 Roderick L. Evans, *A Royal Priesthood* (Camden, North Carolina: Kingdom Builders, 2006)을 보라.

4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교회에서도 이 논의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쿡가르의 기념비적인 연구인 Yves M. J. Congar, *Lay People in the Church: A Study for a Theology of the Laity*, trans. Donald Attwater (Westminster Maryland: Newman Press, 1957) 이후에 국내외 가톨릭 세계에서는 「신학전망」, 「사목」, 「가톨릭 청년」, 「누리와 말씀」, 「복음과 문화」 등의 잡지들에 수십 편의 글이 발표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의식이나 제도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로 「신학전망」에 발표된 글을 몇 편 정리해 보았다. 서인석, “평신도 신학의 성서적 배경,” 「신학전

근대의 종교개혁운동을 통해 교회개혁의 정신으로 인정받게 될 개혁사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다미아니(Petrus Damiani, 1007-1072)에 대해, 그리고 사상의 일관된 흐름이란 차원에서 종교개혁 이전 교회개혁운동들에 대해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이런 연구를 통해 종교개혁 이전 개혁운동들의 역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회개혁사상의 흐름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려는 주제의 성격을 감안해 먼저 성직계급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제2차 바티칸 공의회><sup>5</sup>를 예감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다미아니의 개혁사상<sup>6</sup>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와 국가의 역할 분담’, ‘교회의 동일한 구성원인 성직자와 평

망」 제6호 (1968): 13-48; Yves M. J. Congar, “제2차 바티칸과 평신도,” 「신학전망」 제6호 (1968): 4-12와 40; G. Verhaegen, “평신도의 사제직,” 「신학전망」 제6호 (1968): 25-34; Joseph A. McCoy, “평신도와 선교,” 「신학전망」 제6호 (1968): 35-40; Paul Mikat,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력,” 「신학전망」 제6호 (1968): 41-48; Frederick Gast, “하느님 백성의 어제와 오늘,” 「신학전망」 제6호 (1969): 49-59; 이제민, “평신도의 교회,” 「신학전망」 제82호 (1988): 33-44; 이제민, “성직자중심과 남성중심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전망」 제110호 (1995): 41-65; 김진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신학전망」 제146호 (2004): 22-4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신학자들은 평신도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기를 시도했다. 이런 학자들 중에는 콩가르 외에 한스 쿵(Hans Küng)이 있다. 쿵은 교회의 성직화를 경계하면서 왕다운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성직자 위주의 그릇된 교회관을 지적한다. 옥한흠이 그의 교회론에 대해 놀랄울 정도로 성격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의미가 있다. Hans Küng,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왜관: 분도출판사, 2004), 8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두란노, 1996), 87의 각주 15를 보라.

5 평신도의 지위 향상을 비롯해서 이 공의회가 보여준 교회관에 관해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Documenta Concilii Vaticani I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226-247을, 공의회에 기여한 쿵의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에 관해서는 한스 쿵, *Die Kirche*, 정지련 역, 『교회』(서울: 한들출판사, 2007), 517-553을, 그리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공의회를 이해하는 데는 G. C. Berkouw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New Catholicism*, trans. Lewis B. Smed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65)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신도’, ‘영성 추구에서 나타난 남녀 차별의 극복’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종교개혁 이전 개혁운동들<sup>7</sup>과 관련해서는 성경적 교회의 회복을 추구한 개혁자인 발도(Peter Waldo, 1140-1218)와 위클리프(John Wyclif, c. 1328-1384), 그리고 후스(Jan Hus, c. 1369-1415)가 이끌었던 교회개혁운동들<sup>8</sup>에 나타난 개혁사상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해서 다룰 것이다.

## 2 다미아니의 교회관에 나타난 교회개혁사상

### 2.1 교회와 국가의 역할 분담

중세 기독교 세계를 큰 틀에서 교회와 국가, 즉 교권(*sacerdotium*)과 제권(*imperium*)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미아니의 개혁이념과 관련해서도 교회, 국가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다미아니의 교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교권과 속권이란 측면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6 앤더슨의 글은 짧지만, 다미아니의 만인제사장적 교회관과 개혁이념을 압축해서 잘 보여준다. C. Colt Anderson, “An 11th-Century Scandal,” *America* 192 (2005): 20-23.

7 라은성, “발도파 고대성: 발도와 발도파의 관계,” 『역사신학 논총』 제6집 (2003): 32-50; 손은실, “중세시대의 복음주의 발도파와 설교자 수도회와 ‘그리스도 따르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25집 (2009): 61-91; 홍지훈, “위클리프의 교회개혁,” 『신학이해』 제16권 (1998): 153-174; 최종원, “레지널드 피록의 속어 저작을 통해 본 15세기 잉글랜드 교회와 반(反)롤라드 담론,” 『서양사연구』 제37집 (2007): 33-68; 최종원, “위클리프와 옥스퍼드의 롤라드파: 그 지적 정체성, 1377-1415,” 『한국교회사학회지』 22권 (2008): 1-19; 최종원, “1414년 이후 후기 롤라드파 사상의 몇 가지 쟁점 연구,” 『서양중세사연구』 제24호 (2009.9): 155-179; 최종원, “위클리프와 롤라드파의 면별부 비판 연구,” 『영국 연구』 제22호 (2009. 12): 1-22; 정미현, “제1의 종교개혁,” 『신학사상』 94(1996): 165-191; 홍지훈, “후스의 종교개혁과 교회갱신,” 『신학이해』 제15권 (1997): 104-122.

8 12-16세기에 걸쳐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이 개혁운동들에 대해서는 복음적 이단운동이란 말이 적절할 수도 있다. 손은실, “중세시대의 복음주의 발도파와 설교자 수도회와 ‘그리스도 따르기’를 중심으로,” 68.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미아니에게 있어서 로마는 전체 기독교 세계인 교회의 머리였다.<sup>9</sup> 반면에 그는 세속 권력에도 성사적 성격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의 신적 기원을 찾으려 했다.<sup>10</sup> 그는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 1056-1106)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권과 제권이라는 두 개의 직위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시성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밝혔다.<sup>11</sup> 이처럼 그는 성직자 정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국가 자체를 악마나 죄, 또는 인간의 산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왕과 교황은 호혜적 사랑으로 맺어져 교황은 왕 안에서, 그리고 왕은 교황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왕의 추밀원과 사도직의 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사제권과 황제권은 긴밀하게 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12</sup>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왕국의 칼(*gladius regni*)’과 ‘교회의 칼(*gladius sacerdotis*)’이 하나가 됨으로써 사제의 칼은 왕의 칼을 보다 더 둔하게 하고, 왕의 칼은 사제의 칼을 보다 더 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3</sup>

그러면서 다미아니는 이 두 권위의 수행자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사제권은 왕권의 후원을 통해 강력해지고, 왕권은 사제직의 성결을 통해 지지받게 된다<sup>14</sup>는 것이었다. 그는 두 권력에

9 Petrus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herausgegeben Kurt Reindel, Teil 2: NR. 41-90 (München: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1988), 542.24-28.

10 Leopold Kühn, *Petrus Damiani und seine Anschauungen über Staat und Kirche* (Karlsruhe, 1913), 20.

11 Petrus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herausgegeben Kurt Reindel, Teil 3: NR. 91-150 (München: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1988), 389.7-22.

12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2: NR. 41-90, 571.14-24.

13 김봉수, 『페트루스 다미아니와 중세의 교회개혁운동』 (서울: 그리스심 2005), 122.

성사적 성격을 부여하고, 협조와 견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서 그들 사이의 역할분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위해 교권의 세속적 행위는 경계하면서 성직자에게 자비와 인내라는 무기만을 허용했다.<sup>15</sup>

다미아니의 생각을 정리하면 기독교 세계에는 두 개의 최고 권력인 교권과 제권이 있고, 전자는 교황<sup>16</sup>, 그리고 후자는 황제를 통해 대표되면서 두 권력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왕인 동시에 교권을 잡은 자이며, 교권과 속권의 두 권력은 단지 '세상의 머리들'에 해당할 뿐이다. 그가 제국이 교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상의 형성에는 성경에 토대한 그의 신학적 신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sup>18</sup>

정리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미아니의 견해는 국가에 대해 교황권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교황청의 새로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전통주의자, 혹은 구학파에 속하는 인물로 여겨지면서 당대의 다수 개혁가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sup>19</sup> 이런 그의 태도는 성직매매

14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3: NR. 91-150, 389.10-12.

15 Heinz Löwe, "Petrus Damiani, Ein Italianischer Reformier am Vorabend des Investiturstreites,"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6 (1955): 72.

16 Petrus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herausgegeben Kurt Reindel, Teil 4: NR. 151-180 (München: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1993), 145.1-162.33.

17 Petrus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herausgegeben Kurt Reindel, Teil 1: NR. 1-40 (München: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1983), 415.12-416.20.

18 Owen J. Blum, *St. Peter Damian: His Teachings on the Spiritual Life* (Washington, D. C.: CUA Press, 1947), 26.

19 Hanna Vollrath, "Kaisertum und Patriziat in den Anfängen des Investiturstreites,"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85 (1974): 419. 휘트니는 훔베르트(Humbert, ?-1061)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론이 더 새롭고, 극단적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다미아니의 이론을 더 오래된 것으로 돌렸다. James P. Whitney, "Peter Damiani and Humbert,"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1 (1925): 237.

를 공격한 하인리히 3세에 대한 평가나 요시야와 다윗에 빗대어 그 황제를 칭송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그는 이런 맥락에서 수도원의 개혁을 위해 수도원장이나 교단 외에 황제나 제후에게도 지원을 호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sup>21</sup>

## 2.2 교회의 동일한 구성원인 성직자와 평신도

다미아니가 ‘만인제사장’을 말하면서 로마 시장 켄키우스(Cencius)가 행한 설교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한 일은 즉흥적이 아니라, 일관된 사상에서 나온 태도로 보인다. 그는 그 시장에게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사제로서 말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평신도의 연설이 아닌 설교라는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신적 권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모범을 따랐다면서 격려했다.<sup>22</sup>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다미아니는 최대한 많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미아니는 바울, 요한,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

20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1: NR. 1-40, 502.6-503.14.

21 봉사에 초점을 맞춘 다미아니의 성직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24-226에 있는 3장 “교회의 위계조직, 특히 주교직,” 24-29의 내용과 비교해 보라.

22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3: NR. 91-150, 528.9-13. 1917년에 발행된 비오-베네딕도 법전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를 구별하면서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고, 소송에서 중재하는 것도 금지되고 심지어 미사 때 쓰인 기구들을 씻는 일조차 금지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평신도 설교에 대한 그의 긍정적 평가는 매우 특별하다. 아울러 이런 태도는 “최근까지만 해도 신도가 회중 앞에서 강론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교회와의 현상에서 볼 때 사목상 신도에 의한 강론은 바람직한 일이며, 신도에게 주어질 설교의 특운을 기쁘게 인정하며 이 특운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직자는 힘써야 하겠다”는 식의 최근 사조와 같은 맥락에 있다. 김진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27; 양한모, “성직자와 신도와의 관계,” 『사목』 제30호 (1973): 20.

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고전 6:15)로서 그분처럼 되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피로 신자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계 1:5), 모든 신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자격을 갖는다(벧전 2:9)고 말했다. 말하자면 모든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덕(또는 복음)을 전할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바울과 요한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다미아니의 신학인 것이다.<sup>23</sup>

다미아니는 로마 시장이 제사장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것을 통해 그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재판석에 앉아서 법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언도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거룩하고 열정적인 훈계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킬 때 제사장과 왕의 모범을 명백히 따른다고 말함으로써 평신도이기에 더욱 더 왕과 제사장일 수 있다는 논리까지 보여주었다.<sup>24</sup>

한편 성직수임에 의해 설교직이 부여된다고 생각한 다미아니는 성직자를 설교의 전문가로 보았다.<sup>25</sup> 아울러 그는 풍부한 지식, 하나님께 속할 것, 기도를 통한 철저한 준비, 설교 내용의 실천을 통한 모범을 강조하는 설교자론을 피력했다.<sup>26</sup> 그는 설교자에게는 먼저 영적 사상의 풍부함이 있어야

23 다미아니는 고전 6:15; 계 1:5; 벧전 2:9을 근거로 설교권을 포함한 사제직이 평신도에게 있다는 '만인제사장'의 이념을 보여준다. 이런 논리 전개나 인용 성구들은 현대에도 대부분 이용되는 것들이다.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3: NR. 91-150, 173-196. 528.13-19. 옥한흠,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 『평신도』, 빛과 소금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 1992), 12-15; R. Paul Stevens,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서울: IVP, 1995), 25-49를 참조하라.

24 이런 시각으로는 신자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살면서 담당하는 일들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성일, "평신도 공학," 『신앙과 학문』 7 (2002): 164-180.

25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2: NR. 41-90, 538.6.

26 다미아니는 성직자에게는 순결, 청빈, 겸손, 그리고 신학적 교육이라는 자격 조건과 설



하고, 다음으로 덕스런 삶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자질들 중에 삶을 통한 모범이 화려한 화술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sup>27</sup>

다미아니가 로마 시장에 영적이고 세속적인 업무 모두를 요구하는 근거는 성경의 인물들인 아론과 모세의 역할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는 신자인 시장에게는 정치활동 외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정에서는 송사를 다루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훈계의 말을 전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담당했던 일들을 교회 안팎에서 감당해야 할 임무가 신자인 로마 시장에 주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sup>28</sup>

다미아니는 로마 시장에 유다 마카비(Maccabee)를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교회의 소유물, 가난한 자의 돌봄과 광포한 압제자에 대한 징벌, 정의와 공평의 유지, 가족의 일보다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헌신할 것 등을 나열함으로써<sup>29</sup> 평신도 지도자의 관심이 사사로운 일보다는 교회적이고 공적인 일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의 호칭은 그를 교회적이고 공적인 업무를 위해 더 힘을 쏟게 만드는 의무감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y VII, 1073-1085)가 교황에 즉위한 후 교황청의 걱정거리가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혁운동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그 주제는 칼빈과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가들에게 이르러서 한층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만인제사장’의 성향을 드러내 보이게 된 것이다.<sup>30</sup>

---

교, 통치(또는 행정), 재정관리, 그리고 사법판단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봉수, 『페트루스 다미아니와 중세의 교회개혁운동』, 102-119를 보라.

27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4: NR. 91-150, 529.16-18.

28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4: NR. 91-150, 530.34-531.3.

29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4: NR. 91-150, 531.14-22.

30 포이치트는 자신의 책에서 ‘만인제사장’의 근거 성구들을 제시했다. Oscar E. Feucht,

### 2.3 여성 추구에서 나타난 남녀 차별의 극복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별을 극복하는 성향을 보여준 다미아니의 만인제사장적 이념은 당시 사회의 또 다른 차별 대상인 여성에게로 확대되어 갔다. 그는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봉사를 통한 기여란 점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교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미아니는 남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징들을 여성들이 가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이 남성들보다도 더 유리하게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이 교도의 시를 인용해 가면서 여성에게는 적과 싸우는데 있어서 남성에게는 없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격려하면서, 주교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불결한 군대에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하라고 고무시키고 있다.<sup>31</sup> 정리하면 신앙적 차원에서의 헌신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미아니는 자신의 시대에서부터 기독교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sup>32</sup> 그는 드보라와 에스더, 그리고 테베스(Thebez)의 한 여인과 아비가일, 그리고 외경에 나오는 유딧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야기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아텔라이데의 분발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여성에 대한 다미아니의 긍정적 태도는 남녀의 협력을 강조

---

*Everyone A Minister A Guide to Churchmanship: For Laity and Clergy* (St. Louis, Missouri: Concordia, 1974), 32-40.

31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3: NR. 91-150, 297.3-11.

32 Jean Leclercq, "Der heilige Petrus Damiani und die Frauen," *Erbe und Auftrag* 51 (1975): 273-274.

하는 데서 특히 잘 나타난다.<sup>33</sup>

다미아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차별을 물리쳤다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평등적 관점을 보였다. 그는 예배 중에 “주여, 보소서. 당신의 종과 여종들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기도 내용과 “당신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찬양의 제물이 되리이다”라는 표현에 대해 해석하면서 찬양의 제물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 드러지는 것으로 남자 혹은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다. 즉 형식이 어떻든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sup>34</sup> 여기서 보듯이 다미아니에게는 적어도 영성 차원에서 볼 때,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다미아니는 성직자에 의해 드러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모든 권속, 성도에 의해서 차별 없이 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기록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다.<sup>35</sup> 이런 그의 태도는 남성과 여성을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가운데,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성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시각<sup>36</sup>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에 나타나듯이 다미아니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sup>37</sup> 오히려 그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별을 극복하면

33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3: NR. 91-150, 295.25-306.12.

34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1: NR. 1-40, 259.11-17.

35 Damiani,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Teil 1: NR. 1-40, 259.19-21.

36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성을 굴종시키는 이슬람교와 약자들을 노예화하는 힌두교의 엄청난 도전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차별, 신분적 차별, 그리고 성적 차별을 철폐하고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확대해야 하는 구원사적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102.

서 여성에 대해, 그리고 특히 연합된 능동적인 여성에 대해 (남성들이 스스로에 대해 종종 즐거운 평가를 내리기 원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신뢰를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결코 여성 혐오자가 아니라는 평가를 스스로 끌어낸 사람이다.<sup>38</sup>

이런 다미아니의 생각은 11세기 후반과 12세기 초반에 있었던 평신도들의 종교적 소명(남성들과 여성들의 거대한 무리가 공동생활을 위해 몰려드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미아니가 평신도였던 그의 스승 로무알드(Romuald)와 함께 교회나 사회의 일들에 있어서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켰다는 평가<sup>39</sup>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교회와 국가나 성직자와 평신도 문제에서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을 넘어서는 근거를 주로 성경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온건한 개혁가들을 대표하던 다미아니의 사후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y VII, 1073-1085)로 교황에 즉위하면서 중세의 교회개혁운동이나 정책의 방향은 보다 더 급진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해 갔다.<sup>4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지만 성경과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개혁운동들이 산발적으로라도 발생한 것은 의미

37 링은 원그리스도교와 초기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보여준 여성관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세의 그것과 구별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미아니는 시대적 조류와는 상반된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Hans Küng, *Die Frau im Christentum*, 이종한·오선자 역, 『그리스도교 여성사』 (왜관: 분도출판사, 2011).

38 레끄레프고는 다미아니의 다양한 글들을 분석한 후에 교회개혁 즉 성직자들을 교정하는 일에 있어 평신도들에게 부여한 자격을 여성들에게도 동등하게 주려는 것이 그의 입장이라고 결론짓는다. Jean Leclercq, "Der heilige Petrus Damiani," *Erbe und Auftrag* 51 (1975): 281.

39 Henrietta Leyser, *Hermits and the New Monasticism* (London: Macmillan Press, 1984), 45-49.

40 온건론자들의 대표하던 다미아니가 죽은 후 급진적 성향이 강한 힐데브란트가 교황에 즉위하여 급진적 이론을 대표하던 훔베르트의 이론을 중세 교회개혁운동에 적용한 것은 향후 중세 교회개혁운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Anton

가 적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중세 교회의 계급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중에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에 토대해서 나온 다미아니의 개혁이념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운동 이후 가깝게는 발도를 통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을 통해, 그 맥을 이어갔다. 정리하면 다미아니는 교회개혁의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개혁운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3 종교개혁 이전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교회개혁사상

#### 3.1 발도와 남유럽의 교회개혁운동

발도는 거지 성 알렉시스(St. Alexis)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면서 성경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라틴어를 읽을 줄 몰랐고,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 성직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경 일부를 불어로 번역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복음서(마 19:16-24)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후에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방랑 설교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서 평신도인 발도가 설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남편의 급진적 변화에 놀란 그의 아내가 리옹

---

Michel, “Die Folgeschweren Ideen des Kardinals Humbert und Einfluß auf Gregor VII,” *Studi gregoriani* 1 (1947): 65-92; Norman F. Cantor, “The Crisis of Western Monasticism 1050-1130,” *American Historical Review* 66 (1960): 56.

의 대주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대주교는 그에게 허락 없이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the Poor Ones of Lyons)’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교리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으며, 성경, 더 좁게는 복음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sup>41</sup>

발도파는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평신도 집단이었으며, 그들에게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분적 차별 때문에 설교가 금지되는 일은 없었다. 반면에 사제들에게만 설교하는 권한을 부여했던 중세 교회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것은 중세 교회의 계급주의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인제사장적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격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42</sup>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계급적 구조 외에 성직자들이 흔히 연루되었던 두 가지 범죄, 즉 성직자의 죄(clerical sins)라고도 불린 ‘성직매매(simony)’와 ‘성직자 음란(nicolaitism)’ 이 성직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발도가 실천한 철저한 가난의 추구 또한 성직매매 혐의가 짙은 성직자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었다.<sup>43</sup>

발도의 추종자들은 성경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교단과 그 활동에 대해 교황의 승인을 받으려 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를 교회의

41 발도파는 가난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발도파 조직이 성직자들에 대한 세속적 삶에 대한 실천적 항거의 차원에서 극도의 가난을 삶의 지표로 삼거나 당시에 무시되었던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라운성, “발도파 고대성: 발도와 발도파의 관계,” 32.

42 Gabriel Audisio, *The Waldensian Dissent: Persecution and Survival c. 1170-c. 1570*, trans. Claire Davison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99), 3.

43 발도파는 지역에 따라 셋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프랑스 ‘리옹의 가난한 자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자들’, ‘오스트리아의 발도파’가 그것이다. 발도파가 카타리파를 이교도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가 그들을 카타리파와 관련시켜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짙었다고 볼 수도 있다.

구성원으로 믿었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sup>44</sup> 그러나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는 그들의 자발적 가난은 허락한 반면에 평신도 설교에 대해서는 금지를 결정했다. 따라서 설교를 계속하던 발도파는 1182년에 출교를 당해 리옹을 떠났고, 1184년에는 이단으로까지 정죄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도파는 교황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고, 남프랑스와 북이탈리아에서 극성하게 되었다.<sup>45</sup> 발도파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도 그들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발도파는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없다는 핵심적 구원교리를 갖고 있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발도파의 고대성이나 사도적 기원에 대한 논의도 있게 되었다.<sup>46</sup>

후에 파렐(Guillaume Farel)은 알프스 산맥에 숨어 살던 발도파를 만나서 그들의 신학적 유사성에 알게 되어, 발도파 대회에서 종교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여도록 권면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발도파가 주장한 ‘만인제사장’이나 ‘오직 성경’의 원리를 루터나 칼빈의 시대보다 350년이나 앞서서 사람들이 믿고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프스의 발도파가 파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sup>47</sup>

44 E. G. Jay,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주재용 역, 『교회론의 변천사』 (서울: 기독교서회, 2002), 124.

45 이들이 주로 머물며 활동한 곳은 피에몬테(Piedmont) 지역으로 숲으로 덮여 있는 곳이었다. 그 원래의 이름은 ‘*pedes montium*’ 이었고, 현재로는 튀린(Turin), 노바라(Novara), 알렉산드리아(Alessandria), 그리고 쿠네오(Cuneo)가 있는 이탈리아 지역에 해당한다. 라운성, “발도파 고대성: 발도와 발도파의 관계,” 『역사신학 논총』 제6집 (2003): 32와 각주 1을 보라.

46 라운성의 논문 “발도파 고대성: 발도와 발도파의 관계”는 이 주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47 Phil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경수 역, 『교회사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4), 233-234.

후에 칼빈의 사촌인 올리베탕이 발도파의 교육을 위해 알프스 산악 지대로 파견되어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실을 보면, 발도파와 칼빈의 개혁운동 사이에 적잖은 관련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sup>48</sup> 그리고 1545년에 프랑스 루앙 지역에 있던 3,600여명의 발도파 사람들이 프랑스 군에 의해 학살당하게 되었을 때, 칼빈이 그들을 위해 국왕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스위스로 피신하는 것을 도와준 데서 그런 관련성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sup>49</sup>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발도파의 일부가 프로테스탄트로 흡수된 것 또한 사실이다.

초기의 발도파는 사랑의 실천이 포함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중세 교회의 입장을 포함하는 한계를 보여준 면도 없지 않았지만, 교회로부터 주어진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철저히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개혁적 입장을 수용했고, 후에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다.

### 3.2 위클리프와 영국의 교회개혁운동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위클리프가 가르친 내용에는 성경이 교황이나 교회 그리고 교부들의 가르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2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신학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선구자

---

48 이것이 프랑스어로 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성경이다. Natalie Zemon Davis, *The Gift in Sixteenth-Century France*, 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 16세기 프랑스의 선물 문화』 (파주: 서해문집, 2004), 194와 Bernard Cottret, *Histoire de la Reforme Protestante*, 박건택 역, 『루터 칼뱅 웨슬리』 (서울: 솔로몬, 2004), 227을 보라.

49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470-471; Colin Jones,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France*, 방문숙·이호영 공역, 『캠브리지 프랑스사』 (파주: 시공사, 2001), 166.



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는 발도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성직자들은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그는 예수님만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교황들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라며 비판했다.

옥스퍼드나 런던을 중심으로 잉글랜드에서 그는 주로 교황의 세속권에 대해 비판하는 설교를 하거나 교회의 부패를 지적했다.<sup>50</sup> 그가 로마 교회를 가리켜 사용한 ‘적그리스도’, ‘거만하고 세속적인 로마 사제’, ‘흉악한 도적과 강도’란 표현들에서 당시 교회에 대한 그의 시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교황이 다른 사제보다 매고 푸는 권세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세속 군주들이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51</sup>

교회와 국가의 정체에 관한 위클리프의 생각은 『신정지배론』(*De dominio divino*), 『세속지배론』(*De civili dominio*), 그리고 『대화록』(*Dialogus*)에 주로 나타나 있다. 그는 『세속지배론』을 통해 교황 또는 성직자 집단, 그 누구든 자신들의 재산을 남용하면 국가가 그것을 박탈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교회개혁에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을 호소하는 다미아니와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즉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스리는 권세를 갖지 못하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교회의 계급주의에 도전함으로써, 근대의 종교개혁가들이 보여줄 특징을 앞서서 보여주었다.<sup>52</sup>

50 John Wycliff, *De Civili Dominio*, ed. R. L. Poole (London, 1885), 345.

51 이것은 교회개혁의 완성 차원에서 성직자들의 부패를 끊기 위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다미아니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처음부터 평신도가 세상의 권위와 부를 성직자들에게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그들의 영적 과업에 실패할 경우 성직자와 수도사들의 위계에 속한 개혁가들과 함께 하는 교회개혁에서 이것들을 다시 취할 의무는 평신도들에게 있다는 것이 다미아니의 입장이었다. Anderson, “An 11th-Century Scandal,” 22.

위클리프는 목회자 본연의 임무가 설교에 있음에 강조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장 숭고한 봉사인 설교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성사의 집행보다 말씀 선포인 설교가 더 고귀한 업무라고 보았다. 아울러 말뿐인 설교보다는 선한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설교가 완성된다고, 사제가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여 참된 교과서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3</sup> 이로써 그는 앞에서 살펴본 다미아니의 설교론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그레고리우스 11세(Gregory XI, c. 1329-1378) 교황은 위클리프에 대해 사악하고 저주받을 이단교리로 신자들을 오염시켜 멸망으로 이끌고, 교회를 전복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몰아부쳤다. 따라서 그를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c. 1275-c. 1342)나 장덩의 요한(John de Jandon, c. 1300-1328)과 같은 부류의 인물로 간주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제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자신의 유작에 교황을 암시하면서 ‘적그리스도(Anti-Christ)’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sup>54</sup>

교회개혁가로서 위클리프의 장점들은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의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위클리프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신앙생활을 위해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남겨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52 위클리프는 『교회론』(De ecclesia)에서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도록 선택된 자들이라는 정의를 내렸으며, 이 저작은 후스의 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G. A. Benrath, “John Wyclif,” *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 4. Mittelalter II (Stuttgart, 1983), 226.

53 위클리프의 설교론에 대해서는 Matthew Spinka ed., *Advocates of Reform from Wyclif to Erasmus*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48-49에 있는 “Wyclif: The Pastoral Office,” Part II, 2를 보라.

54 R. Buddensieg ed., *John Wyclif's Polemical Works* (London, 1883), II, 674-676, 691.

위클리프에게 있어서 성경은 주님의 무오한 법으로서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완전하고 건전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하는 온전한 진리였다. 따라서 그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보았으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철자 하나라도 참되며, 성경 저자들은 필경사나 전령에 불과하다고 믿었다.<sup>55</sup>

성경과 관련해서 위클리프를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개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성경이 성직자들만을 위한 책이고, 그것을 해석할 권한은 교회법학자들이나 교황에게만 있다고 보던 당시의 관례를 깨뜨렸다. 그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공부해야 할 책이기 때문에, 평신도에게 그것을 금하는 것을 죄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모국어로 알게 하는 것을 사제 즉 성직자의 첫째 의무로 보았으며, 교황과 성직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다.<sup>56</sup>

위클리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직접적 접촉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기독교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야 하며, 지식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부단히 하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 사제들의 오만과 탐욕이 그들의 무지와 이단설을 불러오며, 성경의 바른 이해로부터 그들을 차단시킨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데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또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sup>57</sup> 성경 번역에 대한 열정도 바로 여

---

55 위클리프의 저서인 『성경진리론』(*De veritate sacrae Scripturae*, 1378)과 William Mallard, “John Wycliff and the Tradition of Biblical Authority,” *Church History* 30, No. 1 (1961): 50-60을 읽는 것이 위클리프의 성경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6 Jay, 『교회론의 변천사』, 189.

57 성경 번역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파악된다. 특히 위클리프 당시에는 그것이 성직자보다 평신도나 여성들에게 개방됨으로써 계급적인 중세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 Larry Stone, *The Story of the Bible*, 흥병룡 역,

기서 시작되었다.

영어로 성경을 읽히겠다는 위클리프의 열정이 성경 번역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은 정작 교회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위클리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라거나 믿음이 신학의 전부이며, 성경을 배움으로써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들을 통해 종교개혁자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음 위클리프파로 불리다가 후에 롤라드파<sup>58</sup>로 불리게 되었으며, 1390년 경부터 1425년까지는 도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14세기 말에 궁정의 고위직 평신도들이 위클리프의 이념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랭커스터의 헨리 4세(Henry IV, 1399-1413) 때에 발생한 탄압, 1401년의 이단화형법안 통과와 같은 일들로 인해 유력자들이 롤라드의 신분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망명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1406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위클리프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기도 했지만, 1425년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주교들에게 이단들과 롤라드파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그들은 쇠퇴의 길을 갔다.

피콕(Reginald Pecock, c. 1395-c. 1461)은 롤라드파를 가리켜 ‘평신도파’ 또는 ‘성경의 사람들’ 이라고 불렀다.<sup>59</sup>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개혁운동의 근거를 성경에 둔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을 그렇

『성경 번역의 역사』(서울: 포이에마, 2011), 111.

58 롤라드파의 어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독일 남부의 말인 ‘lullen’ 혹은 ‘einlullen’ 에서 온 것으로서 ‘자장가를 부른다’ 는 의미의 말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커 보인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이길상 역, 『교회사전집(6): 보니파키우스 8세부터 루터까지』(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4), 329.

59 교회적 인물로서 피콕에 대한 분석과 그가 제기한 ‘반롤라드 담론’에 대한 최종원의 논문 ‘레지널드 피콕의 속어 저작을 통해 본 15세기 잉글랜드 교회와 반(反)롤라드 담론’을 읽는 것이 롤라드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추구한 개혁운동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화체설의 부정<sup>60</sup>, 순례나 화상 숭배 및 비밀 고해에 대한 단죄, 자국어로 성경 읽을 권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믿음을 근거로 한 구원을 강조하거나, 연옥 교리와 사제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결혼의 유대와 사제 독신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부정한 데서 보듯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예기한 집단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

### 3.3 후스와 보헤미아의 교회개혁운동

후스와 그의 추종자들인 후스파는 보헤미아에서 교회개혁을 이끌며,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sup>61</sup> 그가 자신과 프라하 대학의 구성원들이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소장했으며, 또 20년 넘게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해 왔다고 스스로 밝힌 사실에서 그들이 위클리프의 사상적 영향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스는 학문적 활동 외에도 설교자로서 삶도 살았으며, 베들레헴 교회 주임신부의 임무도 수행했다. 그는 이 교회의 성직자로서 10년 동안 약 3천 편의 설교를 했으며 체코어 설교도 도입했으니, 여기서 그의 개혁운동이 갖는 설교를 통해 대중을 상대로 하는 특성을 보게 된다.<sup>62</sup> 그는 이미 1402

---

60 위클리프는 가톨릭교회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이단이며, 논리와 문법과 자연과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신은 일종의 영적 임재(spiritual presence)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61 보헤미아에서 있어 후스의 개혁운동은 옥스퍼드에서 위클리프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 제롬트(Jerome of Prague, 1379-1416)를 통해 그 성격이 결정된 면이 강하다. 제롬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탈해 있으며,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쳤고, 후스는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실천하기에 이른 것 같기 때문이다. 그와 후스 사이에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개혁자의 삶이 공유된 듯하다. 개혁자 제롬트에 대해서는 Schaff, 『교회사전집(6)』, 367-370을 보라.

62 F. Seibt, "Jan Hus," Martin Grescha ed., *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 4. Mittelalter II

년에 프라하 대학에서 위클리프주의를 해설하고 변호하는 핵심 인물로 여겨졌다. 그런 이유로 그곳의 성직자들은 후스를 견제하고 공격했다. 그들은 후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지했던 위클리프의 성찬교리를 문제 삼았다.

보헤미아에서 후스 및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공격은 중세 교회가 느끼는 위기감에 비례해서 그 강도를 더해갔다. 교황 인노첸티우스 7세(Innocent VII, 1404-1406)는 1405년에 대주교 스빈코(Sbinko)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상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해에 프라하 교회도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러나 후스는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위클리프 신학의 옹호와 선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민중이 그것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sup>63</sup>

1410년에 대주교 스빈코가 교황 알렉산더 5세의 대칙서에 따라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압수하여 소각했으며, 교황이 허락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설교를 일절 금했다. 1411년에는 후스가 자신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교황청 출두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편지를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발송한 것을 보면 후스는 자신의 교리나 신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다.<sup>64</sup> 그러나 프라하 대학은 정통 신앙을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 45개 조항과 후스의 발언들에서 추려낸 6개 조항을 단죄했는데, 그들 중에 2개가 설교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프라하 성직자들의 요구에 따라 교황청의 파문과 단호한 처리가 있게 되어, 그는 그 도시를 떠나 설교와 저술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이런 유배 기간에 그는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De catholicae*

---

(Stuttgart: W. Kohlhammer Vlg., 1983), 252.

63 J. Hus, *Letters of J. Hus with Introductions and Explanatory Notes* by Herbert B. Workman and R. Martin Pope (London, 1904), 36.

64 Hus, *Letters of J. Hus with Introductions and Explanatory Notes*, 51-54.

*ecclesiae unitate*)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관이 포함된 『도나투스파 논박』과 같은 저작, 그리고 위클리프의 저서 다음으로 유명한 교회 관련 저서로서 기억할 만한 『교회론』(*De ecclesia*)을 저술했다.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후스의 『교회론』과 『성직매매론』(*On simony*)을 통해서 그의 개혁사상을 가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sup>65</sup>

후스의 『교회론』에는 중세의 계급적이거나 성직자 중심적인 성향<sup>66</sup>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을 빌미로 추기경 다이(D'Ailly)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 소책자가 저주받은 무함메드의 책인 『꾸란』 못지않은 다양한 논리로 교황의 절대권을 공격한다고 비난했다.<sup>67</sup> 그는 『교회론』을 통해 교회를 예정된 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하나로 묶으면서,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지지했다.<sup>68</sup>

그런 맥락에서 후스가 ‘교황무오설’을 비난한 것은 당연하다. 그는 그것

65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이고, 훔베르트나 다미아니가 중심이 되어 이끈 중세의 교회 개혁운동이나 루터와 칼빈이 중심이 된 종교개혁운동,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모두에서 교회관에 관한 논의는 교회개혁운동의 핵심 이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후스는 『교회론』은 물론 자신의 『성직매매론』에서 위클리프의 『성직매매론』(*De simonia*)에 사용된 표현을 자주 이용함으로써 개혁사상의 측면에서 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pinka, *Advocates of Reform from Wyclif to Erasmus*, 199의 각주 5와 276의 각주 25를 보라.

66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9-39, 특히 10-17쪽을 보라.

67 키프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준 교회관이 루터와 칼빈이 대표하는 종교개혁가들의 교회론 형성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교회관을 포함한 후스의 개혁사상이 어떻게든 종교개혁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교회관 전반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제이의 책 『교회론의 변천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68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은 종교개혁운동은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개혁운동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교회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바텐하우스가 잘 정리해 놓았다. Roy W. Battenhouse,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54.

을 입증하기 위해 교황들의 부도덕과 잘못된 행위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황의 능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면서, 진심어린 회개와 마음의 자백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황과 교회의 무오성, 그리고 천국 문을 여닫는 사제의 권한도 부정함으로써, 중세 교회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새로운 교리나 신학을 주장하게 되었다. 후스가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주장했던 새로운 교리나 신학의 내용들은 주로 교회나 성직매매와 관련해서 위클리프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sup>69</sup>

후스는 자신이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다. 실제로 1414년 9월 1일 그가 프라하를 떠나 콘스탄츠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반복되는 투옥과 『교회론』을 비롯한 그의 저서들에서 찾아낸 오류와 이단성을 근거로 이루어진 공의회 산하 위원회의 혹독한 결정뿐이었다. 후스는 공의회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회론』에서 그가 주장한 교회에 대한 정의, 파문당한 사제의 설교, 그리고 군주나 고위 성직자 중에 무거운 죄를 지은 자의 권한 박탈 등의 유죄를 인정하여 그를 처벌했다.

『교회론』 외에 후스의 개혁운동의 성격에 대해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성직매매론』이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위클리프와 다미아니의 글을 옮겨 온 것과 같은 말을 했다. 즉 성직자가 사도직의 수행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교구의 평신도들은 공개적인 성직매매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0</sup>

---

69 교회관과 관련해서 위클리프가 후스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가능한 문제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후스가 보여준 행동이나 생각들, 그리고 위클리프의 저서들에 대한 탐독과 그런 사실에 대한 그의 시인 등을 감안할 때, 그가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위클리프와 후스의 사상적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샤프가 잘 정리해 놓았다. Schaff, 『교회사전집(6)』 349-350, 특히 각주 94를 보라.



여기서 지역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다미아니,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 이 세 사람에게 성경적 근거를 갖는 유사한 개혁사상이 공유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면 신분에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 입장에 공감했던 것이다.

반면에 후스 당시의 교회는 이런 그의 태도를 빌미로 그를 응징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1415년 6월 24일에 콘스탄츠 공의회 명령으로 후스의 저서가 모두 소각되었다. 또한 감옥에 있던 그는 7월 6일에 주교성당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었으며, 사제직의 파면과 함께 세속 권력에 넘겨지는 처벌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성직위계에 대한 그의 공격은 물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마 16:18)의 해석을 통해 교황 레오와 힐데브란트, 그리고 인노첸티우스 3세의 이론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후스는 불에 태워졌고, 그를 태우고 남은 재는 라인 강에 뿌려졌다. 그를 불태워 죽게 한 기소 내용은 교회에 대한 그의 정의, 교황무오에 대한 부정, 교회를 위해 교황은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와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후에 루터는 로마교회에 대해 후스를 불태워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후스가 경건치 못한 교황은 보편교회의 수장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것 외에 달리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sup>71</sup>

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급진파인 타보르파는 화체설, 성인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면죄부와 사제 중심의 고해 성사를 배격했고,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허용했다. 온건파인 프라하파는

70 Spinka, *Advocates of Reform from Wyclif to Erasmus*, 273.

71 Martin Luther,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원당희 역,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서울: 세창미디어, 2010), 118-126.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는 것을 요구했으며<sup>72</sup>, 프라하 대학이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복음의 자유로운 선포,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는 것, 중죄는 세속 법정이 처벌하는 것, 성직자들이 사도적 가난을 실천하는 것 등을 담은 프라하 40개 조항을 채택했다. 다음으로 일치 형제회(*Unitas Fratrum*)가 보헤미아 형제회로 알려지면서, 종교개혁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특히 보헤미아 형제회는 후스의 영향력 아래, 첼치스키(Petr Chelcicky, c. 1390-c. 1460)<sup>73</sup>가 보여주는 발도파와의 관련성 등을 통해 위에서 검토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개혁가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지역에 따라 독립적으로만 생성,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간에 끼치는 가운데, 후에 종교개혁가들이 제기한 것들에 대해 그들보다는 덜 체계적이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 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후스를 포함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개혁가들은 사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하면서, 개혁을 통해 그들이 교회의 중심 존재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을 반성직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sup>74</sup> 말하자면 그들의 비판은

72 칼빈은 사제들만 잔을 취하는 것에 대해 성찬의 절반을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에게서 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서 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성찬의 잔과 관련하여서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Johannes Calvi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V, 17.47.

73 첼치스키는 『신앙의 그물』(*The Net of Faith*, 1440)이라는 저서를 통해 교황이 하나님 홀로 가져야 할 죄 용서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주님의 영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첼치스키 개인사에 관해서는 Murray L. Wagner, *Petr Chelcicky: A Radical Separatist in Hussite Bohemia* (Studies in Anabaptist and Mennonite History) (Herald Press, 1983)를, 후스파의 교회개혁운동에 관해서는 Howard Kaminsky, *A History of the Hussite Revolution* (Wipf & Stock Publishers, 2004)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74 Christopher M. Bellitto, *Renewing Christianity* (New York/Mahwah, N.J.: Paulist Press, 2001), 117.

성직 자체보다는 주로 ‘성직매매’ 나 ‘성직자 음란’ 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향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대의 계급주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보여준 교회개혁의 이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sup>75</sup>

#### 4 결론

이제까지 검토한 데서 보듯이 교회에 대한 다미아니의 입장은 교회와 국가, 성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각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을 토대로 만인제사장적 또는 형제적 교회관이란 말로 정리될 것 같다. 그는 교황군주제적 성격이 강화되어 가던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성경과 수도원이념에 근거한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을 중심한 교회개혁운동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에는 훔베르트 of 개혁신상으로 기울어 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통치 아래서 교회개혁운동이 점점 더 급진적이고 계급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미아니 사후 성직자 정치와 더불어 계급적 교회관이 강화되어 가던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도와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교회개혁운동을 이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 뒤에서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신상과도 연결될 만한 사상적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중세 교회 안에서 때로는 호소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개혁운동을 추구하는 중에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목숨을 빼앗기는 것도 감수했다.

---

75 후스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종교개혁 이전 개혁운동들에 대해 평가할 때 지침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콘스탄츠 공의회 of 부당성을 인정했고, 루터 또한 그 공의회 of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후스의 후예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미현, “제1의 종교개혁,” 169.

이런 과정에서 다미아니를 비롯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개혁자들은 ‘성직매매’와 ‘성직자 음란’과 같은 성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교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참된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차원에서 성경적 기원을 갖는 만인제사장적인 교회관에 근거한 교회개혁운동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런 개혁운동을 통해 그들이 보여준 개혁사상에는 후에 근대의 종교개혁가들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것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다미아니와 그의 뒤를 이은 종교개혁 이전 교회개혁자들은 계급적 성격이 강했던 중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에 기초한 교회개혁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말하자면 다미아니를 비롯한 발도,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종교적 근거에서 주장되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그 특색으로 했던 시대 안에서 계급적 교회관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에 입각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개혁운동들을 역사의 부분들로 남겨 놓게 되었다.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은 성경적 기원을 갖는 것이기에 교회사의 어떤 국면에서든 그것을 주장하거나 구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평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반성직주의의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중세 교회가 종교개혁 이전 교회개혁가들을 공격한 이유 가운데 그들을 반성직주의자로 본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교개혁 이전 교회개혁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성경’의 정신에 따라 이상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중세의 교회개혁가들이 구현하기를 갈망했던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은 종교개혁운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새롭게 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현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중세 교회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오직 성경’의 정신에 기초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까지 불살랐던 교회개혁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은 왜일까? 성경이 말하는 ‘오직 성경’의 정신 안에 ‘만인제사장’의 이념이 분명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현이 언제든 쉽지 않았다는 반복된 역사의 가르침 때문인 것 같다.

## 참고문헌

-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2010.
- 김봉수. 『페트루스 다미아니와 중세의 교회개혁운동』. 서울: 그리스심 2005.
-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 라은성. “발도와 고대성: 발도와 발도파의 관계.” 『역사신학 논총』 제6집 (2003): 32-50.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6.
- 이광호. “만인 제사장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고찰.” 『한국개혁신학 논문집』 통권14호 (2003): 356-381.
-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정미현. “제1의 종교개혁.” 『신학사상』 94 (1996): 165-191.
- 최종원. “레지널드 피콕의 속어 저작을 통해 본 15세기 잉글랜드 교회와 반(反) 롤라드 답론.” 『서양사연구』 제37집 (2007): 33-68.
- \_\_\_\_\_. “1414년 이후 후기 롤라드파 사상의 몇 가지 쟁점 연구.” 『서양중세사연구』 제24호 (2009.9): 155-179.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Documenta Concilii Vaticani I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홍지훈. “후스의 종교개혁과 교회갱신.” 『신학이해』 제15권 (1997): 104-122.
- Anderson, C. Colt. “An 11th-Century Scandal.” *America* 192 (2005): 20-23.
- Audisio, Gabriele. *The Waldensian Dissent: Persecution and Survival c. 1170-c. 1570*. Translated by Claire Davison.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99.
- Battenhouse, Roy W.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Bellitto, Christopher M. *Renewing Christianity*. New York/Mahwah, N.J.: Paulist Press, 2001.
- Benrath, G. A. *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 4. Mittelalter II. Stuttgart, 1983.
- Berkouwer, G. C.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New Catholicism*. Translated by Lewis B. Smed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65.
- Blum, Owen J. *St. Peter Damian: His Teachings on the Spiritual Life*. Washington, D.C.: CUA Press, 1947.
- Calvinus, Johanne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 Cantor, Norman F. “The Crisis of Western Monasticism 1050-1130.” *American Historical Review*

66 (1960): 47-67.

- Congar, Yves M. J. *Lay People in the Church: A Study for a Theology of the Laity*. Translated by Donald Attwater. Westminster Maryland: Newman Press, 1957.
- Cottret, Bernard. *Histoire de la Reforme Protestante*. 박건택 역. 『루터 칼뱅 웨슬리』. 서울: 솔로몬, 2004.
- Damiani, Petrus. *Die Briefe des Petrus Damiani*. herausgegeben Kurt Reindel. Teil 1-4: NR. 1-40, 41-90, 91-150, 151-180. München: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1983, 1988, 1993.
- Davis, Natalie Zemon, *The Gift in Sixteenth-Century France*. 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 16세기 프랑스의 선물 문화』. 파주: 서해문집, 2004.
- Feucht, Oscar E. *Everyone A Minister A Guide to Churchmanship: For Laity and Clergy*. St. Louis, Missouri: Concordia, 1974.
- Hus, J. *Letters of J. Hus with Introductions and Explanatory Notes* by Herbert B. Workman and R. Martin Pope. London, 1904.
- Jay, E. G.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주재용 역. 『교회론의 변천사』. 서울: 기독교서회, 2002.
- Jones, Colin.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France*. 방문숙. 이호영 공역. 『캠브리지 프랑스사』. 파주: 시공사, 2001.
- Kaminsky, Howard. *A History of the Hussite Revolution*. Wipf & Stock Publishers, 2004.
- Kühn, Leopold. *Petrus Damiani und seine Anschauungen über Staat und Kirche*. Karlsruhe, 1913.
- Küng, Hans. *Die Frau im Christentum*. 이종한. 오선자 역. 『그리스도교 여성사』.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_\_\_\_\_. *Die Kirche*. 정지련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_\_\_\_\_.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2004.
- Leclercq, Jean. “Der heilige Petrus Damiani und die Frauen.” *Erbe und Auftrag* 51 (1975): 270-281.
- Leyser, Henrietta. *Hermits and the New Monasticism*. London: Macmillan Press, 1984.
- Löwe, Heinz. “Petrus Damiani, Ein Italienischer Reformier am Vorabend des Investiturstreites.”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6 (1955): 65-79.
- Luther, Martin.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원당희 역. 『마틴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서울: 세창미디어, 2010.
- Mallard, William. “John Wycliff and the Tradition of Biblical Authority.” *Church History* 30, No. 1 (1961): 50-60.
- Michel, Anton. “Die Folgenschweren Ideen des Kardinals Humbert und Einfluß auf Gregor VII.” *Studi gregoriani* 1 (1947): 65-92.

- R. Buddensieg ed. *John Wyclif's Polemical Works*. London, 1883.
- Roderick, L. Evans. *A Royal Priesthood*. Camden, North Carolina: Kingdom Builders, 2006.
- Schaff, Phil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경수 역. 『교회사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4.
- Schaff, Phil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이길상 역. 『교회사전집(6): 보니파키우스 8세 부터 루터까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4.
- Spinka, Matthew. ed. *Advocates of Reform from Wyclif to Erasmus*.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Stone, Larry. *The Story of the Bible*. 홍병룡 역. 『성경 번역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 Vollrath, Hanna. "Kaisertum und Patriziat in den Anfängen des Investiturstreits."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85 (1974): 11-44.
- Wagner, Murray L. *Petr Chelcicky: A Radical Separatist in Hussite Bohemia*. Studies in Anabaptist and Mennonite History. Herald Press, 1983.
- Whitney, James P. "Peter Damiani and Humbert."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1 (1925): 225-248.
- Wycliff, John. *De Civili Dominio*. Edited by R. L. Poole. London, 1885.



## 국문초록

근대의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의 개혁가들 중에는 후에 근대 종교개혁가들이 보여주게 될 사상적 특징들을 자신의 개혁이념으로 삼아 교회개혁운동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인물들로는 먼저 성직계급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예감한 인물로 인정받는 다미아니(Petrus Damiani, 1007-1072)를 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대 순서를 따라 발도(Peter Waldo, 1140-1218)와 위클리프(John Wyclif, c. 1328-1384), 그리고 후스(Jan Hus, c. 1369-1415)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위에서 말한 중세의 교회개혁가들은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근대의 종교개혁가들이 보여준 개혁이념들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그리고 ‘만인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 과 같은 것들 중에 일부를 자신이 추구했던 교회개혁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미아니는 ‘교회와 국가의 역할 분담’, ‘교회의 동일한 구성원인 성직자와 평신도’, ‘영성 추구에서 나타난 남녀 차별의 극복’ 과 같은 말들로 표현되는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을 보여주었다. 발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에 근거하려는 태도와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그런 개혁이념을 드러내 보였다. 위클리프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성경 중심주의를 보여주었다. 끝으로 후스는 중세에 지배적이었던 계급적 교회론을 부인하면서 교황무오설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근대의 종교개혁운동을 준비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리해 보면 중세의 교회개혁가들인 다미아니, 발도,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종교적 근거에서 주장되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그 특색으로 하던 시대 한 가운데서 계급적 교회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만인제사장적 교회관에 입각한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개혁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종교개혁 이전 교회개혁가들과 그들이 추구한 교회개혁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다미아니, 발도, 위클리프, 후스, 칼빈

## Damian's View of Church and Reforms before the Reformation

Kim, Bong Soo  
Chongshin University

Damian lived in the midst of the hierarchical medieval society. Nevertheless, he thought that there must be a profound equality among the members in the Christian world, a fellowship which is not ruptured by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His rejection of episcopal immunity was found once again in his profound intuition that the sacerdotal office demands service to one's flock rather than domination over it.

Damian's conception of the equality between the members of Church was not differ from the idea of priesthood of all believers, which echoed in the reformed theology of Luther and Calvin. As they did, Damian quoted core verses from Paul, John, and Peter to support his own reform movement.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himself"(1 Corinthians 6:15). "Who loved us, and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and made us a kingdom, and priests to God and his Father"(Revelation 1:5-6)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dedicated nation, and a people claimed by God as his own, to proclaim the triumph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1 Peter 2:9).

The equalitarianism of 'priesthood of all believers' might force Damian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radical and the moderate in Curia. But after his death, the condition of affairs has changed. Hildebrand acceded to the Pontiff as Gregory VII. And he accepted the radical and class-conscious theory of Humbert in his reign. From this time, in the medieval Catholic Church a kind of clericalism began to grow.

Due to this bad condition we can see a group of reformers who acted before the reformation. Waldo, Wyclif, and Hus were the representatives for this group. They and their followers denied openly the papal power and the hierarchy of Church. And they, like Augustine or Damian, found the basis of their reforms in the Bible. Most of them, therefore, on the ground of the spirit

‘priesthood of all believers’ that comes from ‘*sola scriptura*’, they sought to embody an antihierarchical and brotherly view of Church in their reforms. For this purpose they were willing to be excommunicated or burned to death.

To sum up, including Damian, the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 not only attacked the clerical sins (simony and nicolaitism), but also devoted themselves to build an ideal Church, of which the apostles said in the New Testament. Because of this they could show the similar aspects with the reformers (as Luther and Calvin) of the reformation, and was evaluated friendly by them. Taking into this, I would say that the evaluation of reforms before the reformation is need to be more positive.

*Key Words:* Damian, Waldo, Wyclif, Hus, Calvin